

2016. 7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6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6.7.26	대전MBC 대회의실	7/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정민근, 성정모, 신종성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김미리 편성
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최종명 방송기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0	4	-	-	14	-	14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0	4	-	14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0건	10건	6, 7, 8월
보도	한화이글스 경기 뉴스 분량 확대	매주 월요일 뉴스투데이에서 한화이글스 경기 보도	6월
보도	초저금리 시대 뉴스와 토론 프로그램에서 적극 다루어지길	뉴스데스크(6/20, 6/21, 6/22), 시사광장(6/26)에서 “초저금리시대 돈의 흐름을 말하다” 방송	6월
보도	자영업자의 어려움 꾸준히 보도하길	자영업자 급증, 빚더미 우려(2016.6.24.) 경쟁과 횡포에 신음하는 자영업자(2015.9.18.)10년동안 지역자영업자 57만명 폐업(2014.10.10.) 등 다룸	6월
교양	테마여행 “길” 지역정취가 묻어나오도록	충남 금산의 여름(7/7), 열씨구 구레오가자(7/28), 여름이다 떠나자 제주로(8/4) 등에서 다룸	7,8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 MC 시선처리	“생방송 아침이 좋다” 2MC 시선처리 자연스럽게 유도	7월
교양	시사프로그램 인터뷰 처리를 직접취재 형식으로, 전화인터뷰 지양	시사플러스 “지켜지지 않는 최저임금(7/7), 장기기증(7/14), 아파트 경비원, 입주민 상생(7/21) 등 인터뷰 직접 취재	7월
기타	홈페이지 문화행사 업데이트 하길	문화행사 최근 행사로 업데이트 함	7월
기타	대전MBC가 주관하는 주말장터 위생문제 점검	주말장터 농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위생문제 점검함	7월
교양	정보 프로그램에서 청년 취업, 청년 창업 사례 다양하게 소개해주길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청년의 꿈이 피어나는 가게(6/28), 문창시장 청년의 꿈(7/12) 다룸	6.7월
보도	뉴스 “앵커가 만난 사람” 코너에서 특정 대학의 광고효과 부각 안되도록	뉴스 제작시 특정인, 특정기관 홍보되지 않도록 제작에 유념	7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6. 5. 31.~2017.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정민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과학기술단체	
위원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관련단체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원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재)청소년과 사랑사랑충남지회	청소년단체	
위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연구실장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과학기술단체	
위원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단체	
위원	박정훈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신종성	골프존 네트워크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강은혜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7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보도</p>	<p>프로그램의 제목, 타이틀은 그 프로그램의 성격과 제작의도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p> <p>따라서, 프로그램 개편 때 마다 신설 프로그램의 타이틀 설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보면, 라디오 프로그램의 타이틀은 장수하는 편이지만 TV 프로그램 타이틀은 라디오에 비해 단명한 경우가 많다.</p> <p>이런 가운데 , 생방송 아침이 좋다, 토크&조이, 건강 플러스, 가요 베스트, 시사 플러스, 시사 광장 등은 장수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p> <p>대전 MBC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 시사 플러스와 시사 광장 .</p> <p>‘시사 플러스’는 지역의 핫 이슈의 심층 취재를 통해 올바른 지역 여론 형성에 기여코자하는 르포 형식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형식으로 제작자가 직접 참여하는 편성 제작국 프로그램이다.</p> <p>‘시사광장’은 지역 사회의 토론 문화를 지향, 지역의 현안과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장을 통해 대안 제시와 여론형성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 하려는 보도국 프로그램이다.</p> <p>두 프로그램은 제작 방식과 이슈에 대한 접근 방법에서도 확연히 달리 하고 있어서 시사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p> <p>그런데 아직까지도 상당수 시청자들은 두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분 짓지 못하고 있다. ‘시사플러스’와 ‘시사광장’ 두 프로그램이 선을 보인 지 꽤 오래 됐는 데도 말이다. 타이틀에서 유사성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타이틀을 재고할 때가 된 듯싶다.</p> <p>“뉴스데스크”의 ‘앵커가 만난 사람’.</p> <p>소박(?)한 제목이 눈에 띄지만, 각종 뉴스들로 채워진 ‘뉴스데스크’ 한 가운데 나타나는 ‘앵커가 만난 사람’의 타이틀은 낯설다. 편성 제작국 프로그램 타이틀 같다.</p> <p>예를 들면, ‘ 앵커 인’은 어떨까?(김학선)</p>	<p>약 3주로 예상되는 올림픽 시즌 결방을 이용해 시사광장의 타이틀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p> <p>편성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위해 기존 ‘시사광장’ 타이틀 변경을 하도록 하겠다.</p> <p>뉴스 내 기획 코너명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름으로 수정해나가도록 하겠다.</p>	○		
<p>편성</p>	<p>이번 시사플러스(7월21일) [아파트 입주민</p>	<p>대한민국 주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p>	○		

<p>과 경비원, 우리 함께 살아요!] 편에서는 아산시에 소재한 한 아파트에서 입주인과 경비원 사이의 상생 사례 그리고 아산시의 경비원 고용촉진과 근로환경 개선을 독려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및 창출촉진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의 사례를 소개하였다.</p> <p>그리고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일부 주민의 갑질 형태와는 정반대로 아파트 경비원을 위해 에어컨 설치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아파트 구성원 하나로서 경비원을 대하는 주민들을 소개한 영상은 눈길도 끌었지만 그보다 더 눈길을 끌게 한 것은 아파트 입주인들의 경비원에 대한 고용과 근로개선 노력을 평가하여 이를 지원토록 한 아산시 지방자치 조례였다고 본다.</p> <p>무엇보다도 아파트 구성원들의 내부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접근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아산시의 접근방식이 돋보였다. 따라서 이번 시사플러스에서 소개한 아산시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및 창출촉진을 위한 특별지원조례’는 일부 입주인들에 의한 갑질 행태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p> <p>우선 본인부터도 이날 이 방송을 보고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 및 근로환경 개선과 입주인과 경비원간 상생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바로 아산시의 조례가 답이 될 수도 있다고 느꼈다.</p> <p>그래서 이날 방송을 보고 아산시의 아파트 경비원 관련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는지 전수 조사를 해보았다. 그 결과 전국에서 아산시에만 제정돼 있었다. 그리고 아산시 조례 내용도 직접 살펴보니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p> <p>또한 세종시의원에게도 시사플러스 영상도 보여주고 본인이 거주하는 세종시에도 조례제정 및 시행을 제안했다. 반응이 좋았다. 적극 검토해 보기로 하였다.</p> <p>만약 세종시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러한 문화가 확산이 돼 간다면 그게 바로 방송의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p> <p>우리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모욕이나 폭행, 갑질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공분하고 지탄의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우리는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아파트 내부 구성원들 간의 일부 몰지각한 주민의 행태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p>	<p>파트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아파트 경비원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p> <p>오늘 우리는 어떤 입주인의 얼굴을 하고 있을까? 상생일까, ‘갑질’일까?</p> <p>입주인들이 자발적으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준, 아산의 한 아파트... 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인간의 상생이란 그 작은 희망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생각해 보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p> <p>앞으로 지역의 건강한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p>			
--	---	--	--	--

	그러나 이번 시사플러스에서 소개한 아산시 아파트 경비원관련 조례는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일부 주민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일깨워 주었다고 본다(장백기).			
보도	<시사광장> 프로그램이나 보도 뉴스 취재물 등을 네이버와 다음에 올릴 때 인터넷 환경에 걸맞게 재편집하여 올렸으면 좋겠다. 일차 제작된 프로그램을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전국적 이슈가 되길 위해서라도 인터넷 환경에 맞는 후속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이승선)	뉴스의 경우 네이버, 다음과의 계약 상 방송을 통해 보도된 내용 그대로 올리게 되어 있다. 시사광장은 네이버, 다음에 제공 대상이 아니다. 각종 뉴스아이템의 시청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
보도	뉴스데스크에서 폭염주의보 관련 기사를 다루었다. 7월 20일, 21일, 23일, 24일 등에서 폭염을 언급하면서 도심에서 양산을 쓰고 지나가는 주부가 등장하는데 동일한 영상이 4일간 교체되지 않고 똑같이 사용되었다. 같은 내용의 기사라 할지라도 영상은 새롭게 촬영하여 교체를 해야 한다. 같은 영상의 반복적 사용은 자제하길 바란다(이승선).	편성국 영상부와 협의해 보다 좋은 뉴스 화면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	○	
보도	뉴스데스크(7월21일)에서 병원 주변에서 공사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을 “대학병원 배짱공사” 타이틀로 다루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의 입장을 듣는 장면을 보면 영상 모자이크는 제대로 처리를 하였지만 음성 모자이크는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럴 경우 음성변조도 필요하다. 초상권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해당방송사가 벌금을 낸 사례를 보면 SBS 모닝와이드(2015.5.27) 1백만원, MBN “백화점에 물린 주부들” 영상(2014.9.11) 150만원 등이 있다. 보도 제작 시 초상권 개념을 갖고 제작하길 바란다(이승선).	‘대학병원 배짱공사’ 리포트 물의 경우 환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일부 환자의 적극적인 보도 요구가 있었고, 나머지 인터뷰한 환자들도 보도 내용에 공감해 음성 녹음을 허락한 경우이다. 하지만 대전mbc 보도국은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녹취의 경우 철저히 음성변조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각종 리포트 제작 시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	
편성	라디오 프로그램 중 “MBC초대석”을 운전중에 청취하였다. 출연진과 함께 전체적으로 구성이 괜찮게 느껴진다. 지역 청취자들과 함께하는 의미미한 프로그램으로 생각된다(박정훈).	경력있는 아나운서가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라디오 개편 프로그램으로서 지역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한다.	○	
보도	7월 20일 뉴스투데이에 “생태교란 외래식물 1급 가시박 수변구역을 벗어나 들과 산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총주 심충만 기자	앞으로 화면 편집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수해, 잘못된 화면이 송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주의하겠다.		○

	<p>가 리포팅을 한 것을 보니 대전MBC 자체 제작 기사는 아닌 듯싶다.</p> <p>가시박이 생태계를 교란해 주 서식처를 벗어나 산과 들로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 중에 일부 가시박이 아닌 “참”이 있어 시청자들에게 잘못 인상을 준다.</p> <p>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영상편집을 하였더라면 좋았겠다(이상진).</p>				
편성	<p>“생방송 오늘”(7월7일)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하였다. 충남의 화력발전소 문제를 유종준 당진석탄화력 대책위 사무국장을 전화로 연결하여 듣는 시간을 가졌다.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당진, 태안, 보령에 설치된 화력발전소가 지역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 무엇보다도 출연자의 흥분을 적정하게 가라앉히는 진행자 손지혜씨의 진행능력이 돋보였다(이상진).</p>	<p>“생방송 오늘”은 퇴근길 이동 인구를 대상으로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다루는 고품격 시사프로그램이다.</p> <p>뉴스브리핑(오늘의 주요뉴스 정리)과 이슈 앤 포커스 (주요이슈 진단과 분석) 등 코너를 통해 현안을 다루고 있는데 진행자 손지혜씨가 진행자 역할을 하고 있다. 노력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다.</p>	○		
보도	<p>주변 학생들 의견을 물어보니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대전MBC에 대한 관심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p> <p>무엇보다도 그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본다.</p> <p>청소년, 대학생 관련 이슈를 기획보도를 통해서나 또는 토론 프로그램 등에서 다루어졌으면 한다(정철상).</p>	<p>10~20대 청년층의 니즈를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기획보도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p>		○	
보도	<p>장년층은 여름 피서철 가볼만한 곳 하면 안면도나 대천 해수욕장 이외 잘 모를 듯하다. 정보 또한 인터넷 보다 TV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우리지역 명소를 시리즈로 소개하면 어떨까?(정철상)</p>	<p>올 여름 보도국에서는 ‘떠나요, 여름!’이라는 기획코너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명소를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변 명소를 많이 소개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p>	○		
보도	<p>뉴스데스크에서 7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하여 ‘떠나요 여름’이라는 주제로 외연도나 웅도, 난지섬을 소개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알뜰피서지와 여름철 이색도서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여 일상적인 사건사고에 관한 내용만이 아니라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서 대전MBC 뉴스데스크가 시청자와 한 층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어 좋았다.</p> <p>앞으로도 시청자에게 친근하게 다가 설 수 있는 다양한 소재로 더욱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강은혜).</p>	<p>시청자에게 친근하게 다가 설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발굴해서 소개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p>	○		

<p>보도</p>	<p>(7/17)뉴스데스크에서 “남성육아휴직 그림의 떡”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돌봄의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해야 하는 부분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제도 중의 하나가 남성육아휴직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소재를 다룬 것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있는 노동부나 여성가족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도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장시간 근로문화개선과 일·가정양립에 대한 다양한 제도 안내 등의 관련 소재로도 지속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강은혜).</p>	<p>일과 가정의 양립은 대전mbc 뉴스에서도 계속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아이টে이이다. 앞으로 시청자가 공감하고, 지역사회는 물론 정부 차원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관련 보도물을 마련하겠다.</p>	<p>○</p>		
<p>편성</p>	<p>생방송 아침이 좋다 (7월1일)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4주년을 맞이하여 기존 스튜디오가 아닌 세종청사 앞에서 진행이 되었다. 주간뉴스브리핑에서 마지막 세종시민 초대석까지 세종시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쉬운 점은 리나의 충청여지도에서 세종시에서 가 볼만한 곳을 소개 하는 내용이었는데 총 세 곳이 소개되었다. 호수공원과 대통령기록관, 방축천수변공원 음악분수에 대한 소개에서 대통령기록관이 너무 오랜 분량을 차지하는 것 같아 지루했다. 호수공원 43초, 대통령기록관 5분, 방축천수변공원의 음악분수 2분정도이어서 차라리 대통령기록관에서 시간을 짧게 하고 뒤에서 세종시장님이 구두로 소개한 합강의 오토캠핑장이라던지 원수산,전월산 둘레길을 나누어 소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세종시에서 가볼만한 곳이 대통령기록관 밖에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5분여 정도로 길게 다룬 것은 시청자들에게 자칫 지루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청자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고 정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강은혜).</p>	<p>지역의 가볼만한 곳을 소개하는 야외영상물 제작시 시간 안배를 하도록 하겠다.</p>	<p>○</p>		
<p>보도</p>	<p>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개정 찬반 논란이 뜨겁다. 김영란법 개정 논란을 짚어보고 보완점에 대해 토론한 시사광장은 오래간만에 패널간 불꽃튀는 토론이었다(7월17일).</p>	<p>녹화 전 토론자들에게 방송에 부적절한 말을 자제하도록 주지시키겠다.</p>	<p>○</p>		

<p>김용필(충남도의회 의원), 송준호(안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기중(서산축협 조합장), 김영진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4명의 패널이 출연하여 토론을 이끌어갔다. 김용필 의원이 “스폰서 검사, 벤처 검사의 스폰서, 벤츠를 때려잡아야지 농민들이 고생해서 생산하는 동양란, 한우 등이 죽게 된다”는 정제되지 않은 “때려잡아야 한다”라는 표현이 방송에 그대로 여과없이 나왔다. 농민들의 어려운 점을 비교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박정훈).</p>				
--	--	--	--	--